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2호 【루게 제25195호】 주제 105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아안은 우리군대와 인민이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로 당 제7차 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격해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군대에서는 드높은 훈련열의로 전군이 용암처럼 끓으며 훈련의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쌍방실동훈련이 3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훈련에서 조선인민군 제91수도방어군단관하 부대들은 방어전투임무를, 조



기동로를 지배하고 있는 지렛점들을 습격, 장악하면서 차단물들에 대한 공병정찰을 진행하고 전진보장구분대들을 진출시키였다.

조선인민군 제91수도방어군단에서는 3개의 주요방향들에 설치한 차단물들을 전투상태로 이전시키고 차단물통로를 개설하려는 전진보장구분대들의 전투행동을 구속하는 한편 차단물계선으로 진출하거나 그곳에서 멈추어진 기계화중대들을 반장갑집중화력타격으로 소멸하는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

주요지렛점들을 타격하기 위해 날아들던 무장직송기들이 휴대용공사

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관하 부대들은 공격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3방향전방지휘소에서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며 다른 2개 방향에서의 훈련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훈련장에서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팀광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전투훈련국장인 육군중장 방관복동지, 조선인민군 제91수도방어군단장인 육군중장 김명남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김도운동지,

조선인민군 제815기계화보병사단장인 육군중장 고명수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주송남동지가 맞이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공병지휘관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훈련은 부대들 사이의 차단물설비 및 국북을 위한 쌍방실동훈련을 통하여 공격과 방어작전능력을 확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 대책을 세움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적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사수하기 위한 작전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쌍방실동훈련은 정찰기들로 주요도로에 대한 정찰행동과 지렛점들에 대한 드센 화력타격을 들이대는 것으로 시작되였다.

기계화련합부대들은 경보병구분대들로

로켓의 명중사격에 산산이 부서졌으며 각종 포들의 일제사격으로 직송기륙전대착륙구역이 초토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포탄들이 목표들을 통과하게 명중시키는 것을 보시고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포병저격수라는 말이 나올것이라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